

차나무 (학명 : *Camellia sinensis*, 차나무과)

차 한잔 합시다.

흔히들 하는 말로서 그 의미가 커피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를 총칭하고 있지만 차나무의 어린 잎으로 만든 차(茶)야 말로 기호식품의 범주를 넘어서 맛과 멋을 함께한 우리생활의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운남성의 사천지방이 차나무 원산지라고 하며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사람과 차나무가 교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가야국의 김수로왕비가 된 아유타국의 허황옥 공주가 종자를 가져다 심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신라 흥덕왕때(828년) 대렴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종자를 가져왔다고 기록 되어 있다. 하여튼 차의 발상지가 중국 이지만 우리나라에 꽤 일찌감치 들어와 불교문화의 융성과 함께 퍼져 나갔으며, 조선시

대 초의선사나 정

다산 등에 의해 최고로 부흥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식물을 재료로 해서 만든 음료가

많지만 영양학

적으로나 담겨 있는 의미로 볼 때 차와 견줄 만한 것은 찾아 볼수 없을 것이다.

차나무는 한 종류지만 잎의 형태로 보아 중국 소엽종, 대엽종과 인도 소엽종, 대엽종,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 하는 것은 모두 중국 소엽종에 속한다.



차나무 꽃



차나무

차나무는 4~5m 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800년이나 된 나무가 현재 중국 운남성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차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는 대개 9월부터 12월 까지며 간혹 1월에도 피는 경우가 있다. 하얀 꽃잎이 보통 5장이고 꽃의 크기는 지름이 3-5cm쯤 되며, 완전히 개화하면 수술과 암술머리 부분이 밝은 노랑색이라서 녹색잎과 조화를 이뤄서 아름답다.

중국 명나라때 이시진이 쓴 본초강목에 차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차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심장이 강해지고, 열이 내리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기름기가 제거되어 몸이 마르게 되고 잠을 못 이룰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호 식품만 아니고 건강유지를 위해 차의 효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에는 카페인, 탄닌, 비타민A와 C 및 Rutin이라는 항산화 물질과 기타 무기염류가 많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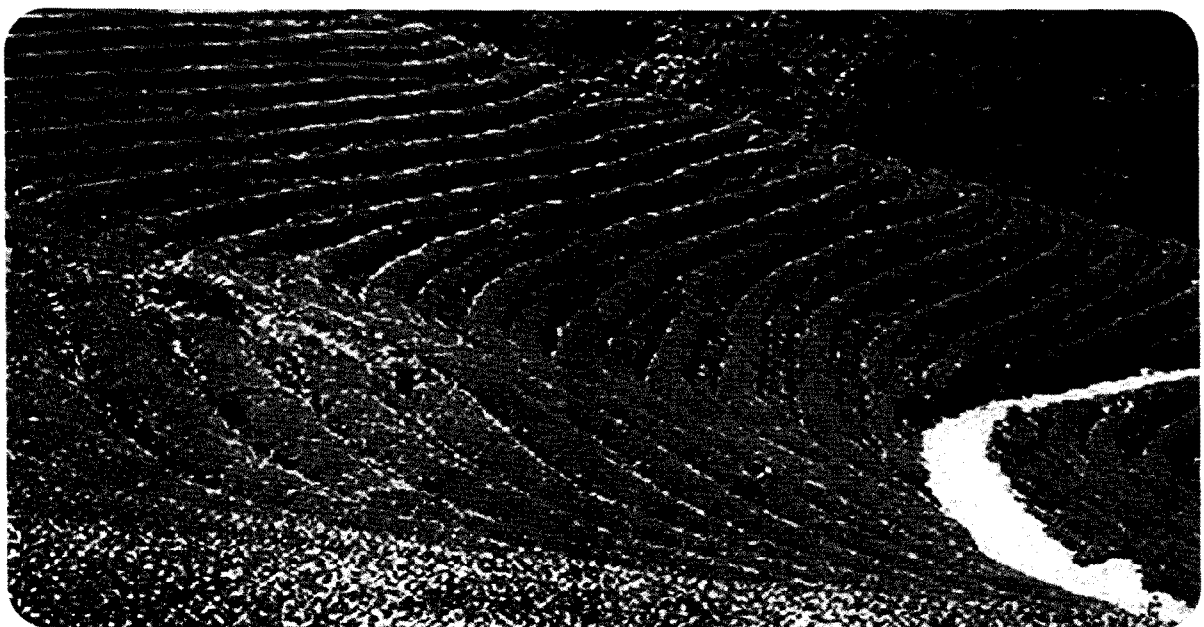
16세기경에 유럽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배의 선원들이 괴혈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는데 그들 중 녹차를 싣고 다니며 먹은 배의 선원들은 괴혈병에 전혀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괴혈병이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잘 걸리는데 녹차에 특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차에 들어 있는 물질이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차잎을 수확하는 시기는 4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까지 보통 네차례 인데 입춘 지나고 88일 후에 수확한 첫물차가 가장 좋고 7월에 따는 것은 더워서 떫은 맛이 강해서 주로 엽차용으로 쓰게 된다.

차나무는 연평균 기온이 13℃ 이상이고 강수량이 1,400mm 이상인 곳이 재배 적지로 보성 지방이 맞아 오래전부터 재배하게 된 것이다. 대개 녹차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약간 냉랭하고 안개가 많은곳이, 홍차용으로는 온난한 곳에서 자란 차잎이 좋다고 한다.

열매로 기름도 짜고 목재는 단추 재료로 쓰고, 또한 차나무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면 아주 아름다우며,꽃이 거의 없는 시기에 개화하므로 적지만 밀원으로서도 도움이 된다. 씨로 번식할 수도 있지만 좋은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성증식(삽목, 취목)이 좋다.

차나무가 작은 떨기 나무지만 우리생활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어떤 커다란 교목성 나무보다 크다. **양봉**



넓게 펼쳐진 차나무 발